

七里 李光麟教授 退職記念論文集

「韓國史特輯」을 펴내면서

역사는 사람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記述이다. 역사는 쓰느이의 歷史精神에 의해 씌어진다. 삶과 활동의 해석은 보는 이의 눈과 마음가짐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歷史精神은 사랑과 관심과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참 모습을 밝히려는 熱情이 일지 않는다. 관심이 없이는 記述의 深度가 깊어지지 않는다. 지식이 없이는 정확한 기술이 불가능하다. 歷史研究는 史學者의 歷史精神의 史實에 대한 投影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七里史學」은 바로 七里의 歷史精神이 이루어놓은 巨峰이다. 韓民族이 累千年 살아오면서 지녀왔던 삶의 틀이 허물어지고 外勢의 暴風奴濤 속에서 先賢들의 近代化라는 새삶으로의 전환노력이 일기 시작하던 19세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학문적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民族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平生 외곶으로 연찬한 폭넓은 지식을 무기로 쌓아올린 巨峰이 바로 七里史學이다.

七里史學에는 거짓이 없다. 과장도 없다. 무슨 일에든지 철두철미한 七里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七里史學에는 소홀함이 없다. 작은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 七里의 學問姿勢가 한치의 소홀함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七里史學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돋보이는 요소는 七里의 깊은 民族愛가 아닌가 생각된다. 七里가 쓴 논문 한편 한편의 行間에는 七里의 깊은 나

라사랑이 진하게 깔려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어떻게 하던 西勢東漸의 격랑과 強大國들의 꺾박속에서 韓民族의 自尊과 平和와 繁榮을 되찾을 수 있을까를 안타깝게 탐구하는 七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七里史學의 研究對象은 近世史이나 그속에는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바로 잡으려는 강렬한 의지가 배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七里史學은 살아있으며 우리에게 깊은 感銘을 준다. 歷史가 단순한 과거의 분석일때는 죽은 학문이 된다. 그러나 歷史가 오늘과 내일로 연결될 때 살아 숨쉬는 學問이 된다. 七里史學의 生動力은 바로 七里의 깊은 “오늘의 認識”과 열정적인 “未來追求”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七里先生은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던 西江의 교수직에서 停年퇴임한다. 그러나 七里의 歷史精神은 그대로 西江에 머물러 있다. 사실의 확인을 위해 太平洋북반의 섬을 찾아가고 한사람의 어린시절을 추적하기 위해 시골 국민학교 학적부를 복사하러 다니는 철두철미한 實證정신, 사실이 뒷받침하지 않는 推論을 거부하는 엄격한 학문정신, 그리고 至誠을 다하여 제자를 가르치는 師道 등은 七里가 키워놓은 綺羅星 같은 後學들에 의해 그대로 이어져 갈 것이다.

七里史學은 한창 圓熟의 경지를 향해 커가고 있다. 지금의 情熱로, 그리고 지치지 않는 정신으로 七里가 계속 10년, 20년 七里史學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韓國史연구 영역에서 영원히 기억될 하나의 뚜렷한 里程標를 세우게 될 것은 틀림없다.

마침 七里先生의 직함이 일반교수직에서 명예교수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조그마한 人生의 모서리가 닦여왔기에 이를 기회삼아 지금까지의 七里史學을 중간 점검한다는 뜻에서 東亞研究所에서는 研究所刊物인 『東亞研究』 第17輯을 「七里 李光麟教授 退職紀念：韓國史 特輯」으로 묶어 七里의 後學들의 論文 27편을 묶어 낸다. 東亞研究所를 創設할 때부터 오늘까지 구석구석까지 정성을 쏟아 일을 도와오신 七里의 공헌에 조그마한 보답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는 研究所員 모두의 뜻이 모아져서 이 특집을

워어 내기로 한 것이다.

이 特輯은 편집기획부터 원고수집, 교정까지 모든 일을 西江大 史學科의 李鍾旭, 洪承基교수, 慶北大의 權延雄교수, 全北大의 鄭杜熙교수 등 記念文集편집위원회의 여러분들이 맡아 해주셨다. 原稿를 기고해 주신분들과 함께 이분들의 勞苦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반년 이상 이 책 출간의 복잡한 일들을 거들어 온 東亞研究所의 여러 助教들에게도 고마운 뜻을 전한다.

七里先生께서 天壽를 누리시고 계속 健康하셔서 七里史學의 틀을 뚜렷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기원한다.

1989年 2月

東亞研究所員 모두의 뜻을 모아

所長 李 相 禹 씀